

경기

- 서울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10.7%로 감소세 심화
 - 10월 서울지역의 생산지수는 94.8로 전년동월대비 10.7% 감소
 - 10월 서울 제조업부문 출하 감소, 재고 증가로 재고누중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부문별 모두 증가, 전국대비 33.8%의 구성비를 보임
 - 10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12.7%, 대형마트 5.9%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0.0% 증가
 - 백화점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의복, 음식료품, 화장품 등의 판매호조로 12.7% 증가, 대형마트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의복, 신발, 화장품 등의 판매호조로 5.9% 증가
- 11월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소폭 상승
 - 상품은 전월대비 0.2%, 서비스는 전월대비 0.1% 상승
 - 생활물가 전월대비 0.0%로 보합,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3.3% 하락

고용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61.1%로 전국(61.1%)과 보합
 - 11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한 61.1%로 나타남
- 11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감소로 취업난 심각
 - 11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8천명(-0.4%) 감소한 4,879천명인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천명(0.0%)증가, 여자는 19천명(-0.9%) 감소
 - 청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6.5% 감소하였으며, 전국대비(-2.0%) 4.5%p 차이를 보임
 - 55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0.0%로 꾸준히 증가,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3.1% 상승
-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4.2% 상승, 전국대비 0.9%p 높음
 - 11월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4.2%로, 남자는 4.7%, 여자는 3.6% 각각 상승
- 서울의 고용률 58.5%로 전국의 고용률(59.1%)보다 0.6%p 낮은 수준

부동산

- 10월 기준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큰 폭 증가
 - 10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조 9,252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3.6% 증가
 - 공공부문에서는 사무실 및 공장, 신규주택공사 등 수주 감소로 전년대비 60.3% 감소, 민간부문에서는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공사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대비 583.0% 증가
- 11월 기준 서울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전월대비 축소
 - 서울의 강남지역(0.0%)은 금융규제 및 재건축 아파트 약세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7개월간의 상승세를 접고 보합으로 전환되었으며, 강북지역(0.1%)도 매수세가 감소하며 상승세가 크게 둔화됨
- 11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전반적인 상승세 둔화
 - 강북지역(0.4%)에서는 광진구(1.4%)와 성동구(1.0%)가 크게 상승하였고, 강남지역(0.8%)에서는 서초구(1.9%)와 강남구(1.3%)의 상승세가 크게 확대됨

금융

- 10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감소
 - 10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09조 4,012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0.50% 감소
- 10월 기준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704개로 전년동월대비 19.6% 증가
- 10월 기준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43개로 전년동월대비 61.3% 감소
- 11월 서울시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11월 서울의 수출은 33.4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42.5% 증가. 수출 1순위는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다음은 자동차부품, 편직물, 반도체 등의 순
 - 11월 서울의 수입은 68.0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21.8% 증가. 수입 1순위는 반도체로 나타났고 다음은 컴퓨터, 석유제품, 자동차 등의 순

| 생 · 산 |

10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10.7% 감소

■ 전국의 10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0.2% 증가

-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3.9% 감소, 전년동월대비로는 자동차, 영상음향통신 등이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 화학제품 등의 호조로 0.2%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에서 부진하여 전월대비 1.4% 감소, 전년동월대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의 호조로 1.5% 증가하여 7개월 연속 증가

■ 10월 서울의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10.7%로 감소세 심화

- 서울시 생산지수는 94.8(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10.7% 감소
- 업종별로는 음료 등은 증가하였으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섬유제품 등에서 감소
- 지난달 소폭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또 다시 감소세를 나타냄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중공업 및 경공업 부문 각각 감소

-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0.9% 큰폭으로 하락하며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5.4%로 1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냄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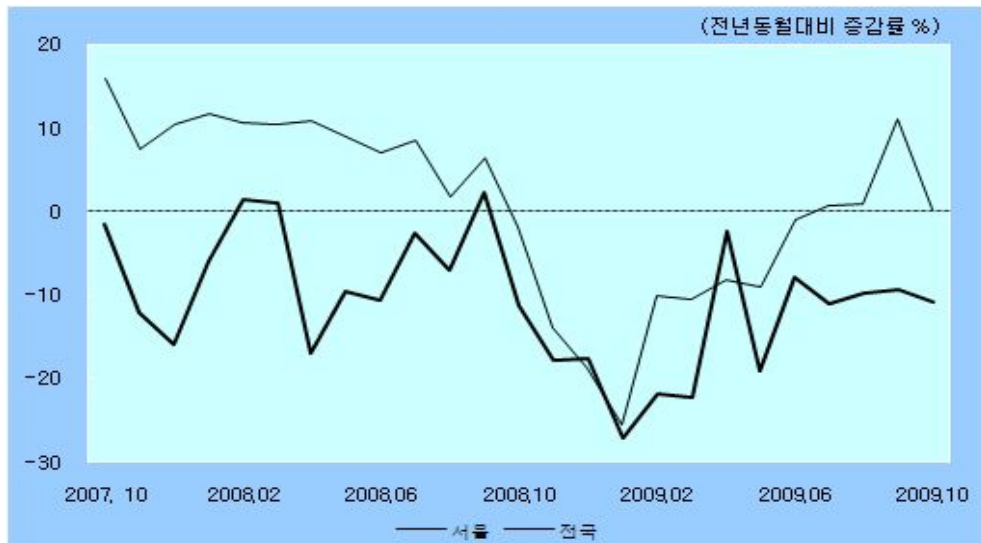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10월	6월	7월	8월	9월p	10월p	
전 년 동 월 대 비	전국	-1.9 (6.4)	-1.1 (6.1)	0.7 (1.9)	1.0 (-5.6)	11.0 (12.6)	0.2 (-3.9)
	서울 (제조업)	-11.2 (-0.3)	-7.8 (4.0)	-10.9 (6.8)	-9.6 (1.5)	-9.2 (10.0)	-10.7 (-1.9)
	중공업	-24.7 (-10.3)	-8.4 (10.3)	-12.8 (-7.8)	-13.6 (7.7)	-30.1 (-8.6)	-20.9 (1.5)
	경공업	-2.0 (5.9)	-7.4 (0.5)	-10.0 (15.7)	-7.3 (-1.5)	3.5 (20.2)	-5.4 (-3.3)

주: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5=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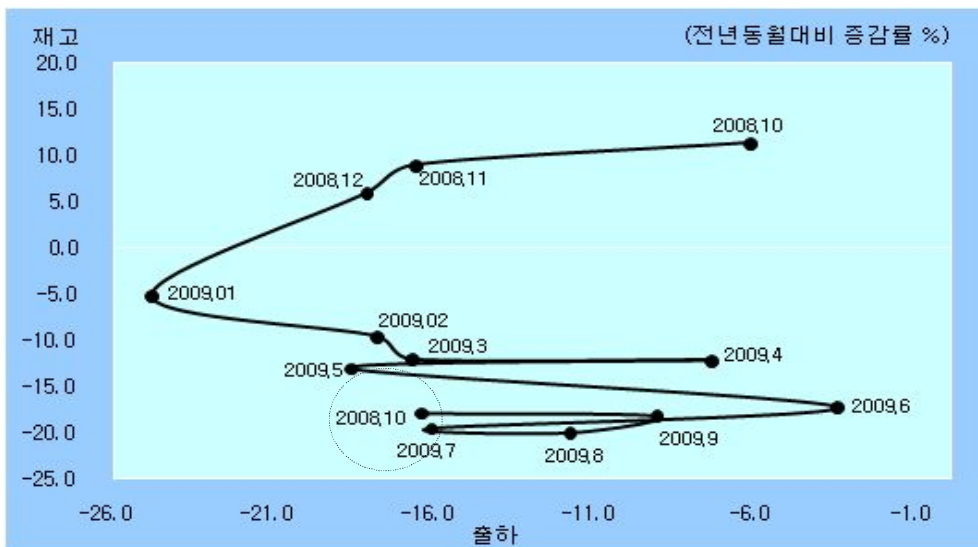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10월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누증 단계

- 서울지역의 10월 중 생산자제품 재고지수는 138.7로 전년동월대비 18.0% 감소
 - 업종별로는 섬유제품, 식료품 등이 증가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1차금속 등에서 감소, 전월대비 0.8% 감소
 -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97.1(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15.9% 감소, 업종별로는 의복 및 모피 등은 증가하였으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 전월대비 4.0% 감소
 - 출하 감소, 재고 증가로 재고누증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전월대비 재고율, 중공업 및 경공업 부문 각각 증가

- 10월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95.8%로 전월대비 3.5%p 증가하였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137.5%로 전월대비 3.3%p 증가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11.3%p 증가한 145.9%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0.6%p 증가한 129.7%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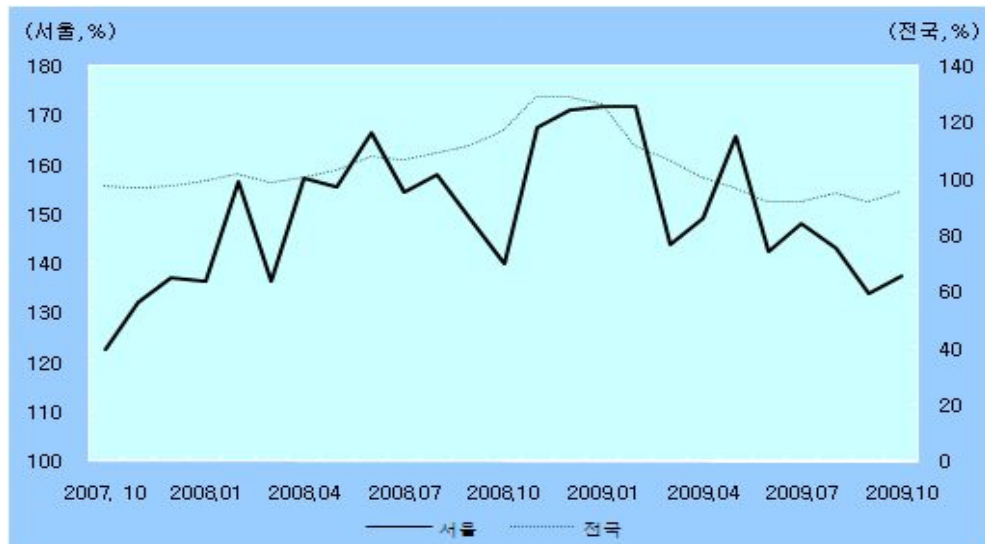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10월	6월	7월	8월	9월p	10월P	증감
재고율	전국	117.4	92.3	92.6	95.6	92.3	95.8	3.5
	서울	140.1	142.5	148.1	143.1	134.1	137.5	3.3
	중공업	155.6	102.3	136.8	120.4	134.6	145.9	11.3
	경공업	131.2	166.5	148.0	150.0	129.1	129.7	0.6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10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부문별 증가

■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12.7% 증가

- 전국의 10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4조6,503억으로 전년동월대비 12.7% 증가함
- 백화점의 경우 전월대비 1.7%, 대형마트의 경우 9.1% 각각 감소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 백화점은 12.0%, 대형마트는 5.6% 각각 증가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부문별 모두 증가, 전국대비 33.8%의 구성비를 보임

- 10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5,704억으로 전년동월대비 10.0% 증가하였으며, 전국대비 33.8%의 구성비를 보임
-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12.7%, 대형마트 5.9%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0.0% 증가, 전월대비 백화점 8.0% 증가하고 대형마트 10.7%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보합세
- 백화점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의복, 신발, 음식료품, 화장품, 운동·오락용품 등의 판매호조로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대형마트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사업체수 증가(전년 64개 → 금년 68개)로 의복, 신발, 화장품 등의 판매호조로 5.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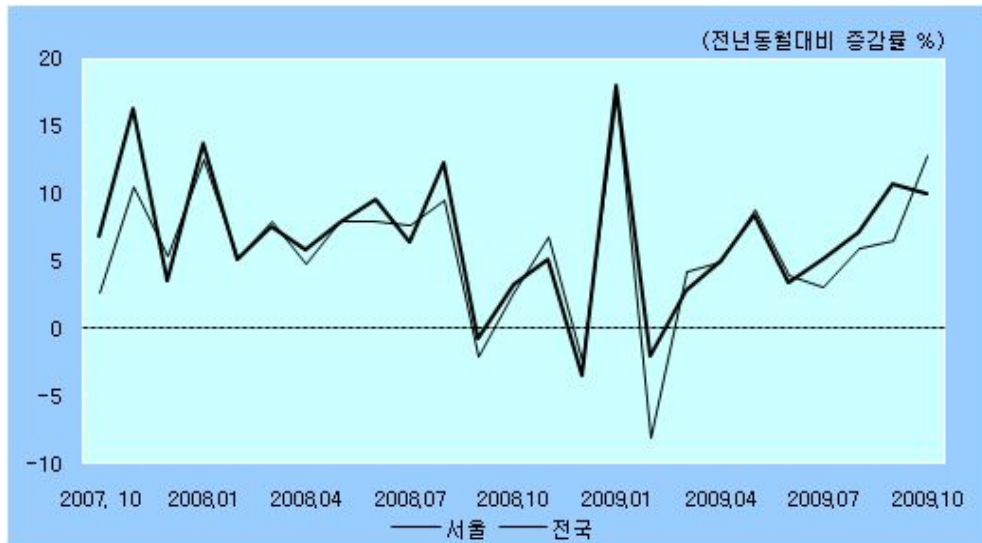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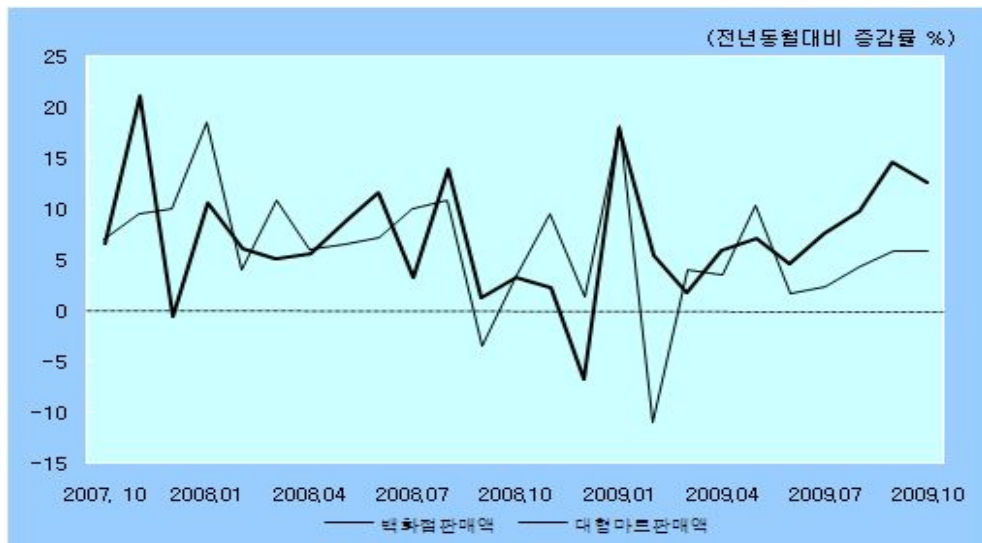
구 분		2008년	2009년				
		10월	6월	7월	8월	9월p	10월p
판매액	전국	4124.5 (2.4)	4060.4 (3.8)	4127.5 (3.0)	4061.4 (5.9)	4605.0 (6.5)	4650.3 (12.7)
	서울	1427.4 (3.2)	1356.9 (3.4)	1337.7 (5.2)	1317.0 (7.2)	1570.6 (10.7)	1570.4 (10.0)
	백화점	861.1 (3.3)	765.7 (4.7)	732.9 (7.6)	703.0 (9.9)	899.1 (14.7)	970.9 (12.7)
	대형마트 (할인점)	566.2 (3.2)	591.1 (1.8)	604.8 (2.4)	614.0 (4.3)	671.4 (5.8)	599.5 (5.9)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 · 가 |

11월 서울의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0.1% 상승

■ 전국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0.2% 상승하여 1개월만에 상승세로 반전

-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4로 전월대비 0.2%로 상승하여 1개월 만에 상승세로 반전
- 생활물가지수 부문은 전월대비 변동 없고, 전년동월대비 2.4%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3.6% 하락, 전년동월대비 4.4% 상승
- 16개 시도별 전월대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는 모두 0.1~0.3% 상승

■ 11월 서울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0.1% 상승

- 11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2.9(전도사:113.4, 2005년=100)로 전월대비 0.1%(전도사:-0.3%), 전년동월대비 2.5%(전도사:2.0%) 각각 상승
- 시도별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서울은 0.1% 하락하였으며 그 외 시도 모두 0.1~0.3% 하락
- 상품은 전월대비 0.2%(전도사:-0.6%), 전년동월대비 3.8%(전도사:2.0%) 각각 상승, 농축수산물물은 전월대비 2.6% 하락,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1.0% 상승
- 서비스는 전월대비 0.1%(전도사:0.1%), 전년동월대비 1.7% 각각 상승, 공공서비스는 전월대비 0.1% 상승, 개인서비스는 전월 대비 0.0% 보합

■ 서울 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보합,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3.3%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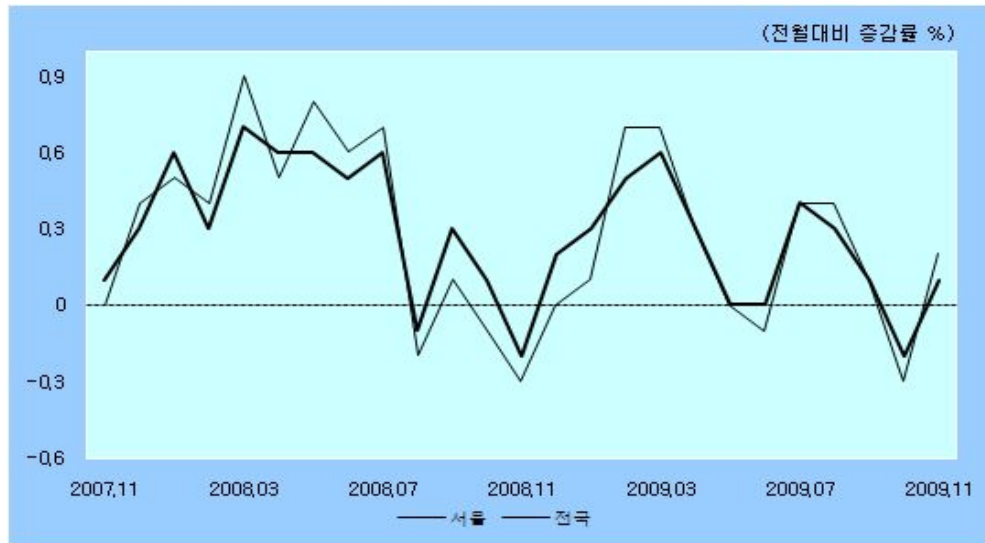
-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필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0%(전국:0.0%) 보합, 전년동월대비 2.4%(전국:2.3%)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3.3%(전국:-3.6%) 하락, 전년동월대비 3.6%(전국:4.4%) 상승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11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비	전국		-0.3 (4.5)	-0.1 (2.0)	0.4 (1.6)	0.4 (2.2)	0.1 (2.2)	-0.3 (2.0)	0.2 (2.4)
	서울		-0.2 (4.2)	0.0 (2.6)	0.4 (2.3)	0.3 (2.6)	0.1 (2.4)	-0.2 (2.2)	0.1 (2.5)
	상품 성질별	상품	-1.1 (4.9)	-0.4 (3.0)	0.5 (2.2)	0.4 (3.2)	0.2 (3.0)	-0.5 (2.5)	0.2 (3.8)
		서비스	0.4 (3.8)	0.2 (2.2)	0.4 (2.3)	0.2 (2.3)	0.0 (2.2)	0.0 (2.0)	0.1 (1.7)
	생활물가		-0.4 (3.6)	-0.3 (1.5)	0.4 (1.3)	0.3 (2.0)	0.2 (2.0)	-0.3 (2.0)	0.0 (2.4)
	신선식품		-2.0 (-11.7)	-8.5 (10.7)	1.7 (8.8)	1.7 (5.7)	-1.6 (5.8)	-2.8 (5.0)	-3.3 (3.6)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11월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경제활동참가율 0.4%p 하락

■ 11월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

- 전국 11월 15세 이상인구는 40,27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10천명(1.3%)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24,62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9천명(0.2%) 증가
- 성별로 남자는 14,427천명으로 118명(0.8%)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0,198천명으로 59천명(-0.6%)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은 61.1%로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

■ 11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61.1%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 11월 15세이상 인구는 8,34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3천명(0.8%)이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5,09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0.1%)이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1.1%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남자는 72.8% 여자는 50.0%로 나타남
-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3,24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9천명(1.8%)이 증가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11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경제활동인구	전국	0.4 (-0.1)	0.8 (1.1)	0.3 (-0.7)	0.6 (-0.9)	0.7 (0.4)	0.3 (0.1)	0.2 (-0.1)
	서울	-1.8 (-0.1)	-0.7 (0.6)	-1.2 (-0.3)	-2.5 (-1.9)	-1.7 (0.1)	-1.2 (0.3)	0.1 (1.2)
	남자	-1.0 (0.2)	0.0 (0.5)	-1.0 (-0.4)	-2.3 (-1.8)	-1.6 (-0.2)	-1.2 (0.2)	0.1 (1.5)
	여자	-2.8 (-0.3)	-1.6 (0.7)	-1.4 (-0.2)	-2.8 (-2.0)	-1.8 (0.5)	-1.2 (0.5)	0.0 (0.8)
경제활동참가율	전국	61.8	62.2	61.7	61.1	61.3	61.3	61.1
	서울	61.5	61.6	61.3	60.1	60.2	60.4	61.1
	남자	73.2	73.5	73.1	71.8	71.6	71.7	72.8
	여자	50.4	50.3	50.2	49.1	49.4	49.6	50.0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취·업·자 |

11월 서울의 청년취업 6.5%, 감소세 지속

■ 전국의 11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10천명 감소, 고령층 취업자 는 증가

- 11월 취업자는 23,80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천명(0.0%)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89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1천명(0.6%) 증가하였고, 여자는 9,915천명으로 91천명(-0.9%) 감소하여, 여성 취업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연령계층별로 보면 20대, 30대, 40대 이하에서 감소한 반면, 그 외 연령계층에서는 증가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0%로 꾸준히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고령층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3.2% 증가하였음

■ 11월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청년층 취업자 수 6.5% 감소, 대책 마련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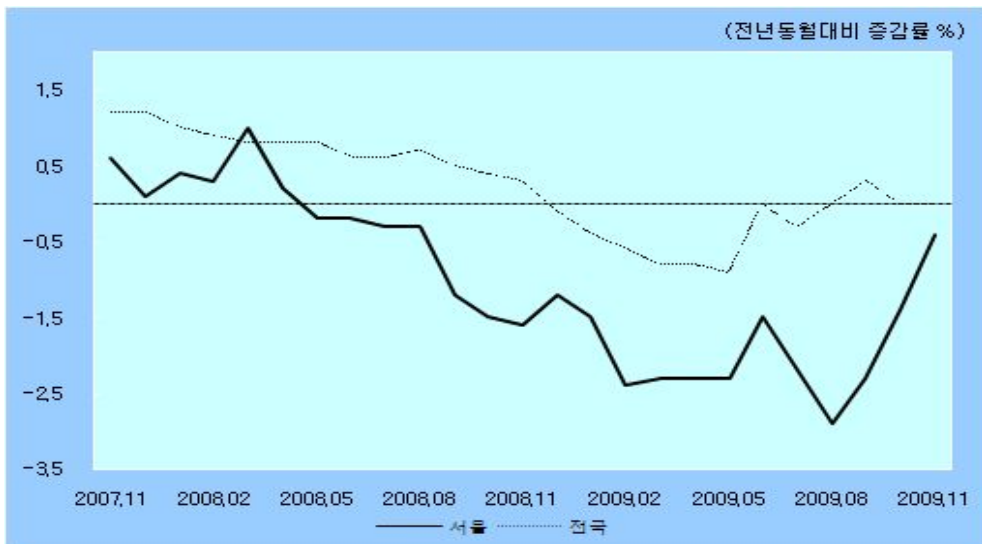
- 서울의 취업자는 4,87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천명(-0.4%)이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12천명, 여자는 2,06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천명(0.0%) 증가, 여자는 19천명(-0.9%) 감소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도소매음식숙박업 40천명(3.0%), 사업개안·공공서비스업 38천명(2.1%), 전가운수통신금융업 9천명(1.2%)은 각각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 1천명(-25.5%), 건설업 68천명(-15.8%), 제조업 35천명(-6.6%)은 각각 감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6.5%로 감소하였으며, 전국대비(-2.0%) 4.5%p의 차이를 보여 전국보다 청년 취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55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0.0% 상승,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 연령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11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취업자	전국	0.3 (-0.1)	0.0 (1.0)	-0.3 (-0.6)	0.0 (-0.9)	0.3 (0.8)	0.0 (0.2)	0.0 (-0.2)
	서울	-1.6 (-0.2)	-1.5 (0.7)	-2.2 (-0.6)	-2.9 (-1.5)	-2.3 (0.3)	-1.4 (0.8)	-0.4 (0.8)
	남자	-1.4 (-0.3)	-1.4 (0.4)	-2.5 (-0.7)	-3.2 (-1.4)	-2.6 (0.0)	-1.3 (1.0)	0.0 (1.1)
	여자	-1.9 (-0.1)	-1.6 (1.2)	-1.8 (-0.3)	-2.4 (-1.7)	-2.0 (0.8)	-1.5 (0.4)	-0.9 (0.4)
청년층 취업자	전국	-4.3 (0.1)	-1.7 (-0.2)	-2.7 (1.4)	-3.1 (-3.1)	-3.2 (-1.9)	-3.5 (-0.9)	-2.0 (1.7)
	서울	-4.0 (-0.2)	-1.2 (-0.9)	-4.1 (-0.7)	-7.0 (-4.0)	-9.2 (-3.3)	-8.1 (-0.9)	-6.5 (1.6)
고령층 취업자	전국	3.3 (-0.9)	4.4 (3.2)	3.7 (-1.6)	4.7 (0.1)	4.6 (2.0)	4.9 (0.6)	3.2 (-2.5)
	서울	-1.6 (-1.2)	4.8 (4.3)	3.5 (-1.3)	2.2 (-1.4)	4.4 (2.9)	7.3 (2.1)	10.0 (1.3)
	55-59세	2.3 (0.5)	3.2 (0.9)	4.2 (-0.8)	0.3 (-2.3)	2.9 (2.0)	4.8 (0.6)	6.2 (2.0)
	60세 이상	-4.6 (-2.5)	6.2 (7.3)	2.9 (-1.6)	3.7 (-0.7)	5.6 (3.6)	9.3 (3.2)	13.1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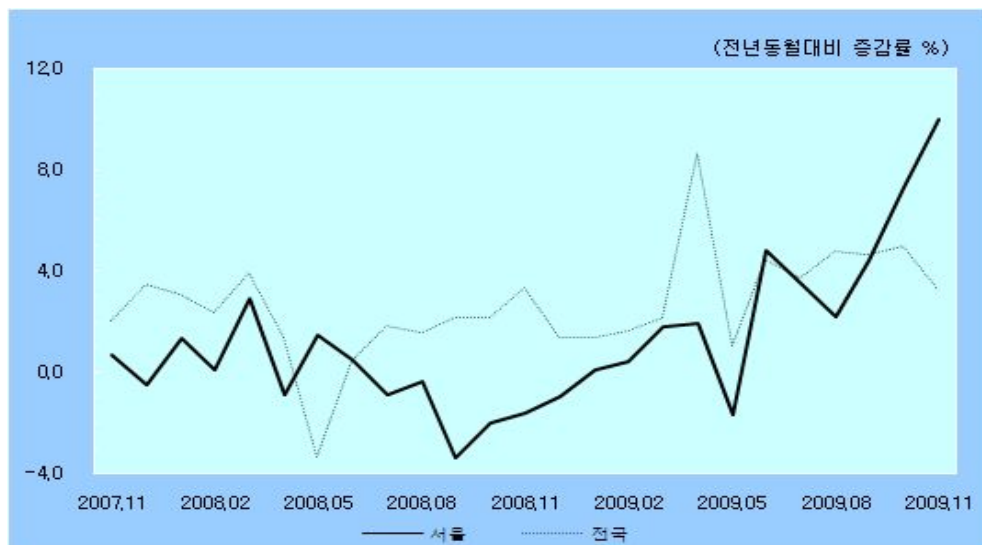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사무종사자, 전문·기술·행정관리자 각각 증가, 농림어업숙련종사자 등은 감소

-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사무종사자 27천명(3.3%), 전문·기술·행정관리자 34천명(2.4%)은 각각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천명(-4.2%),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45천명(-3.3%), 서비스·판매종사자 33천명(-2.5%)은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2.4%,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0.3% 각각 감소

-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1,203천명이고, 임금근로자는 3,67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는 29천명(-2.4%)이 감소, 임금근로자는 11천명(0.3%)이 증가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전년동월대비 31천명(-2.9%)이 감소, 무급가족종사자는 2천명(1.1%)이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23천명(6.4%)이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 21천명(-1.8%), 일용근로자 90천명(-16.8%)은 각각 감소

■ 36시간 이상 취업자 1.4% 감소, 54시간 이상 취업자 3.4% 증가

-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미만 취업자는 54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9천명(7.8%)이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28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0천명(-1.4%)이 감소
- 36시간미만 취업자 중 1~17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8천명(10.6%)이 증가하였고, 18~35시간 취업자도 22천명(6.4%)이 증가
- 36시간 이상 취업자중 36~53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08천명(-3.7%)이 감소하였고, 54시간이상 취업자는 48천명(3.4%)이 증가
- 일시휴직자는 5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명(4.9%)이 증가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6.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2시간 증가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11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산업별	제조업	-14.4 (-10.6)	-17.2 (-4.8)	-16.4 (-1.2)	-14.3 (-3.6)	-21.7 (-1.1)	-17.5 (0.9)	-6.6 (1.2)
	SOC 및 기타서비스업	0.2 (1.2)	0.8 (1.4)	-0.3 (-0.5)	-1.4 (-1.3)	0.4 (0.5)	0.9 (0.8)	0.4 (0.8)
	사업·개인·공공서비스	3.2 (1.6)	6.6 (2.9)	6.4 (-0.3)	4.9 (-1.8)	4.0 (-0.5)	3.6 (1.1)	2.1 (0.1)
	도소매·음식숙박	-1.1 (-0.4)	-1.0 (1.1)	-3.6 (0.0)	-4.3 (0.0)	0.6 (1.5)	1.1 (0.1)	3.0 (1.5)
	전기·운수·통신·금융	-3.1 (2.8)	-1.5 (-0.3)	0.1 (-0.7)	-1.2 (-1.6)	3.7 (1.2)	3.5 (1.1)	1.2 (0.5)
	건설업	-2.6 (2.0)	-13.6 (-1.4)	-18.1 (-3.1)	-18.9 (-2.3)	-20.1 (0.4)	-16.2 (1.3)	-15.8 (2.4)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4.6 (1.4)	3.0 (2.1)	2.2 (0.5)	2.3 (-1.0)	1.6 (0.1)	3.7 (-0.2)	2.4 (0.2)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7.3 (-3.7)	-8.6 (0.1)	-9.6 (-2.2)	-11.5 (-2.3)	-11.9 (-0.1)	-9.0 (3.4)	-3.3 (2.4)
	서비스·판매종사자	-2.8 (2.0)	-0.9 (0.8)	-2.6 (-0.4)	-4.9 (-1.7)	-0.8 (0.6)	0.1 (1.8)	-2.5 (-0.7)
	사무종사자	0.1 (-0.5)	2.4 (-0.9)	3.5 (-0.2)	6.3 (-1.1)	4.9 (1.0)	1.1 (-2.9)	3.3 (1.7)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0.0 (-0.1)	-1.0 (1.2)	-2.2 (-0.7)	-1.5 (-1.4)	-2.0 (0.5)	-0.8 (0.9)	0.3 (1.0)
	비임금근로자	-6.1 (-0.5)	-2.8 (-0.6)	-2.2 (-0.1)	-6.8 (-1.9)	-3.2 (-0.3)	-3.1 (0.3)	-2.4 (0.2)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실 · 업 · 률 |

11월 서울의 실업률 4.2%로, 전국대비 0.9%p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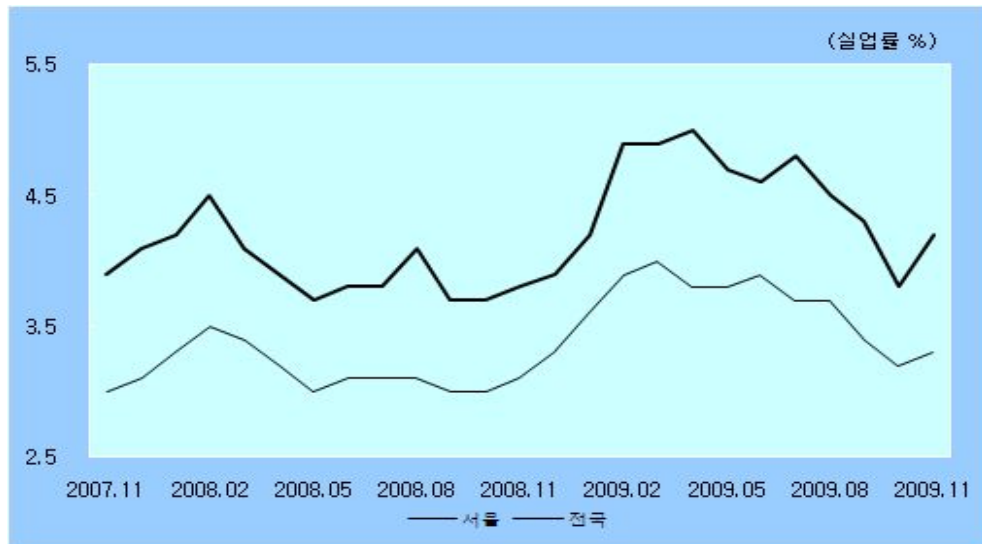
- **전국의 실업률 3.3% 상승하였으며,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
 - 전국의 11월 실업자는 81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9천명(9.3%)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3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천명(7.5%) 증가하였고, 여자는 28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천명(12.8%) 증가
 - 실업률은 3.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7%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여자는 2.8%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하였으며, 연령계층별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
 - 계절조정 실업률은 3.5%로 전월대비 0.1%p 상승
-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4.2% 상승, 전국(3.3%)대비 0.9%p 높은 수준**
 - 11월 실업자는 21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천명(11.3%)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명(2.4%), 여자는 78천명으로 19천명(31.4%)이 각각 증가
 -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7%로 전년동월대비 0.1%p, 여자는 3.6%로 0.8%p 각각 상승
- **서울의 고용률 58.5%로 전국의 고용률(59.1%)보다 0.6%p 낮은 수준**
 - 전국의 11월 고용률은 59.1%로 전년동월대비 0.8%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6%로 전년동월대비 0.5%p, 여자는 48.2%로 전년동월대비 1.0%p 각각 하락하였으며, 15~1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하락
 - 서울의 11월 고용률은 58.5%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4%로 전년동월대비 0.5%p, 여자는 48.2%로 0.8%p 각각 하락
 - 서울의 고용률은 전국의 고용률(59.1%)에 비해 0.6%p 낮은 수준임

〈표〉 실업 및 고용 동향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11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실업률	전국		3.1	3.9	3.7	3.7	3.4	3.2	3.3
	서울		3.8	4.6	4.8	4.5	4.3	3.8	4.2
	성별	남자	4.6	5.3	5.6	5.2	5.1	4.3	4.7
		여자	2.8	3.6	3.7	3.4	3.2	3.2	3.6
고용률	전국		59.9	59.8	59.4	58.8	59.2	59.3	59.1
	서울		59.1	58.7	58.4	57.5	57.6	58.0	58.5
	성별	남자	69.9	69.6	69.0	68.0	68.0	68.7	69.4
		여자	49.0	48.5	48.3	47.5	47.8	48.0	48.2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건 · 설 · 경 · 기 |

2009년 10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

■ 10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큰 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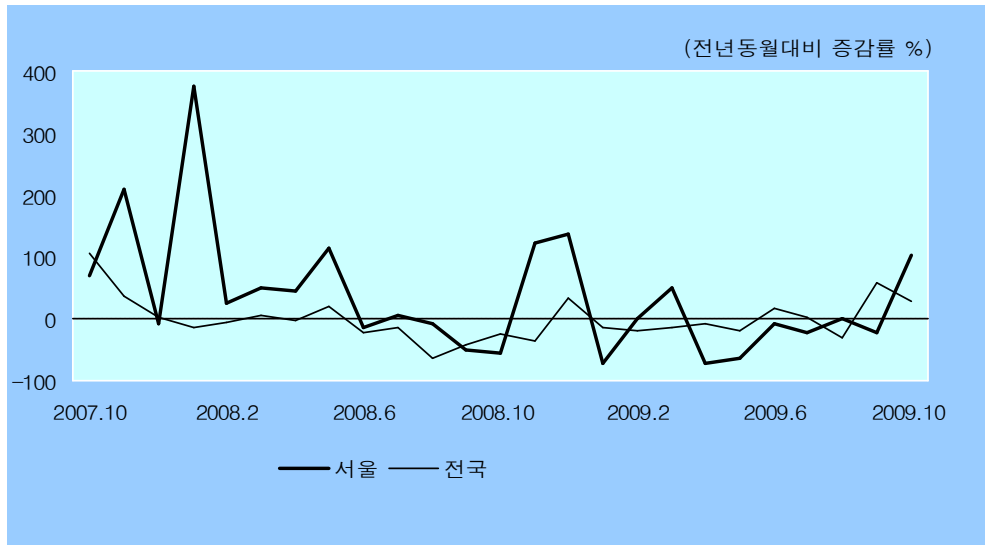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조 9,252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3.6% 증가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10조 4,146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7.2% 증가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국대비 18.5%를 차지
- 공공부문에서는 사무실 및 공장, 신규주택공사 등 수주 감소로 전년대비 60.3% 감소, 민간부문에서는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공사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대비 583.0% 증가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0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국		8,187	11,247	5,527	4,352	8,741	10,415	27.2	19.2
서울		946	1,795	740	864	840	1,925	103.6	129.2
발주 자별	공공	576	197	40	102	278	229	-60.3	-17.6
	민간	246	1,547	967	758	400	1,679	583.0	319.8
공종 별	건축	891	1,665	726	800	487	1,715	92.5	252.2
	토목	53	129	14	62	352	210	296.2	-40.3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11월 서울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전월대비 축소

■ 11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 폭 축소

- 11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3% 상승하며 전반적인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전월(0.4%)에 비해 상승세가 둔화됨
- 이는 DTI 등 금융규제 강화와 비수기가 맞물린 가운데, DTI규제가 배제되는 신규분양 시장으로의 관심 이동 등 복합적 요인으로 기존주택 거래가 감소한데 기인함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다세대주택 포함)이 각각 0.3%, 0.1%, 0.2% 상승하며 모든 유형에서 전월에 이어 상승세가 둔화됨

■ 11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 폭 축소

- 서울 강남지역(0.0%)은 금융규제 및 재건축 아파트 약세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7개월간의 상승세를 접고 보합으로 전환되었으며, 강북지역(0.1%)도 매수세가 감소하며 상승세가 크게 둔화됨
- 시장을 선도하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서울 아파트가격이 7개월간의 상승세를 접고 약보합(0.0%)로 전환되었고, 단독(0.2%) 및 연립주택(0.2%)도 전월에 비해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아파트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강세를 지속함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1월	10월	11월	10월		
전국	100.7	101.1	101.3	101.1	0.6	0.3
서울	101.2	102.5	102.6	102.5	1.4	0.1
아파트	101.7	102.6	102.6	102.6	0.9	0.0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100.9	101.8	101.9	1.0	0.1
	강남	101.6	103.3	103.4	1.8	0.0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지역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 폭 축소

- 강북지역(0.1%)에서는 광진구(0.7%)가 한강르네상스 개발 호재 및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 지구 등 개발 호재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중구(0.4%)는 소형 연립주택거래가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감
- 도봉구(-0.1%)와 중랑구(-0.1%)는 금융규제 강화 및 비수기로 거래가 소강상태를 보이며 하반기 들어 처음으로 하락 전환됨

■ 강남지역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 폭 축소

- 강남지역(0.0%)에서는 관악구(0.5%)가 재건축 기대감으로 연립주택 매수세가 증가한 가운데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자가 전환수요 증가 등으로 전월에 이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였고, 금천구(0.4%)는 금천구심 도시개발 사업 등 호재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 반면, 강동구(-0.4%)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및 금리 상승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과 그동안 급등한 가격에 대한 조정으로 크게 하락하며 올 들어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하였고, 강남구(-0.2%)도 자금출처 조사 및 DTI 금융규제 강화, 재건축아파트 수익률 악화에 대한 우려감에 따른 매수세 감소로 8개월만에 하락 반전됨

■ 11월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11월 27일 기준)은 1,839.52만원으로 전월(1,842.02만원)대비 하락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385만원), 서초구(2,805만원), 용산구(2,572만원), 송파구(2,494만원), 양천구(2,021만원), 강동구(1,914만원), 광진구(1,86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음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1,033만원), 중랑구(1,133만원), 강북구(1,139만원), 도봉구(1,162만원) 등 순으로 나타남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11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둔화

■ 11월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둔화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6% 상승하며 매매가격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지속 하였으나,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인 상승세는 둔화되는 모습
- 수도권(0.5%)도 전반적인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일부 인기 학군 선호지역은 수요증가에 따른 국지적인 수급불균형 현상을 보였고, 광역시(0.7%)와 기타지방(0.5%)은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됨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이 각각 0.8%, 0.2%, 0.3% 상승하며 전 유형에서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아파트는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며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냄

■ 11월 서울 전반적인 상승세 둔화

- 강북지역(0.4%)에서는 광진구(1.4%)가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물량 부족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며 크게 상승하였고, 성동구(1.0%)도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혼부부 수요 등이 증가하며 크게 상승함
- 강북구(0.7%)도 북서울 꿈의 숲 공원 개장 등 주변환경 개선으로 수요가 꾸준하여 상승세는 이어갔으나 이사철이 경과하면서 상승폭은 크게 축소된 모습
- 강남지역(0.8%)에서는 서초구(1.9%)가 신규 대단지 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이 기존 단지에 영향을 주면서 전반적인 상승세가 더욱 확대되었고, 강남구(1.3%)도 겨울 방학을 앞두고 학군 배정을 염두해둔 이주 수요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소형 아파트 수요 증가가 맞물리며 물량 부족으로 상승세가 크게 확대됨
- 금천구(1.1%)는 신혼부부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중소형 아파트 물량 부족으로 상승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양천구(1.1%)는 방학을 앞두고 학군 수요가 급증한 반면 기존 세입자들의 재계약 선호 증가로 공급 물량은 크게 부족하여 상승세가 크게 확대됨
- 반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던 강서구(0.0%)는 화곡 3주구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마무리되며 약보합 수준에 머무름
- 서울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이 각각 0.8%, 0.1%, 0.4% 상승하며 전 유형에 걸쳐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아파트의 상대적인 강세는 지속됨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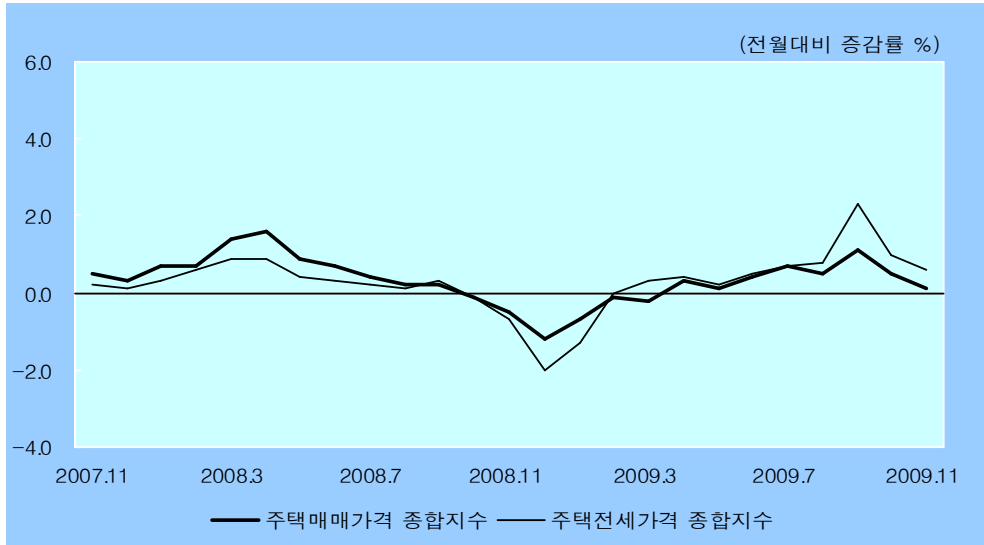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1월	10월	11월		
전국		101.1	102.5	103.1	2.0	0.6
서울		102.1	105.1	105.7	3.6	0.6
아파트		102.8	106.8	107.7	4.8	0.8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101.6	103.5	103.9	2.3	0.4
	강남	102.5	106.7	107.5	4.9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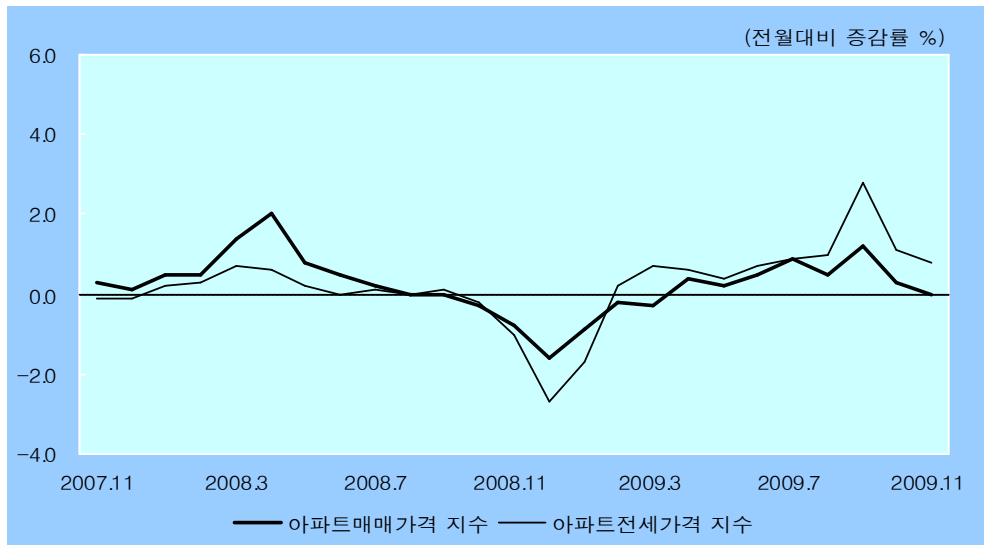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월대비 상승

- 11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0.4%로 전월(40.0%)보다 0.4%p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7월 38.9% → 8월 39.1% → 9월 39.7% → 10월 40.0%)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11월 전국 평균 53.8%보다 13.4%p 낮은 수준이며, 전국과의 격차 전월(13.5%p)보다 소폭 하락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43.1%, 강남 38.1%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5.0%p이며 지난 달(5.1%p)보다 소폭 하락함. 지난 몇 달간 강남북간 격차는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복하고 있음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11월 국고채 금리 큰 폭 하락

금리

■ 국고채 금리 11월 큰 폭 하락

- 국고채(3년) 금리는 10월 하순 연중최고치(10.26일, 4.62%)를 기록한 후 11월에는 일부 심리지표 하락, 두바이 사태 등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큰 폭 하락
- 회사채(3년) 금리도 국고채 금리와 비슷한 움직임

■ CD 금리는 지난달과 같은 수준 유지

- CD(91일) 금리는 장기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의 발행확대, MMF의 보수적 자산운용 등으로 2.79%를 유지

주가

■ KOSPI 지수 급락하였다가 다시 반등

- 코스피지수는 11월말 경 두바이 사태의 영향으로 1,500p 대 초반 수준까지 급락하였다가 이후 불안심리가 완화되면서 반등하여 1,600p를 상회
(08년 10.24일 939p → 08년 12월말 1,124p → 10월말 1,581p → 11월말 1,556p)

■ 11월중 외국인 순매수 규모 소폭 확대

- 11월 중 외국인 국내 주식 순매수 규모 전월보다 소폭 확대
외국인 순매수: 6월 2.3조원 → 7월 6.0조원 → 8월 4.1조원 → 9월 5.1조원 → 10월 1.6조원 → 11월 2.0조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증감
		11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금리	국고채(3년)	4.87	4.09	4.42	4.40	4.47	4.32	-0.15
	CD(91일물)	5.45	2.41	2.48	2.64	2.79	2.79	0.00
	콜금리(1일)	4	1.93	1.98	1.99	1.99	2.00	0.01
	장단기 금리차 ¹⁾	-0.58	1.68	1.94	1.76	1.68	1.53	-0.15
주 가	KOSPI	1,073.95	1460.03	1577.91	1659.45	1630.61	1583.47	-47.14
	KOSDAQ	310.48	496.39	515.61	523.16	501.83	477.15	-24.68
환율 (₩/US\$)		1400.81	1,261.96	1,239.69	1,215.00	1,174.80	1,163.18	-11.62

주: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자료: 한국은행

■ 은행 가계대출 증가 규모 확대

-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규제 강화 및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입주물량 확대에 따른 집단대출 증가 등으로 전월보다 증가폭이 소폭 확대
- 마이너스 통장대출 등 여타대출은 연말 영업점 실적평가를 앞둔 일부 은행의 대출확대 노력에 힘입어 큰 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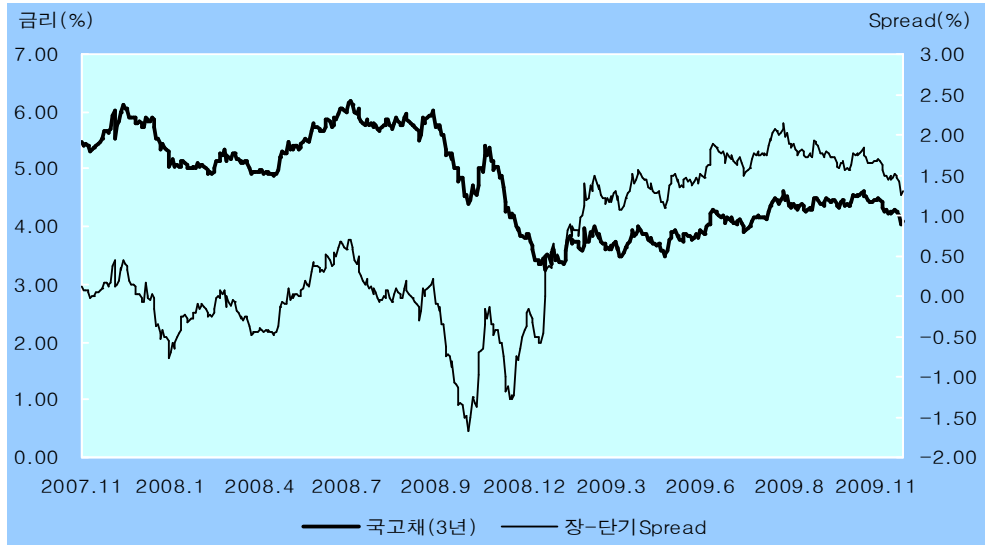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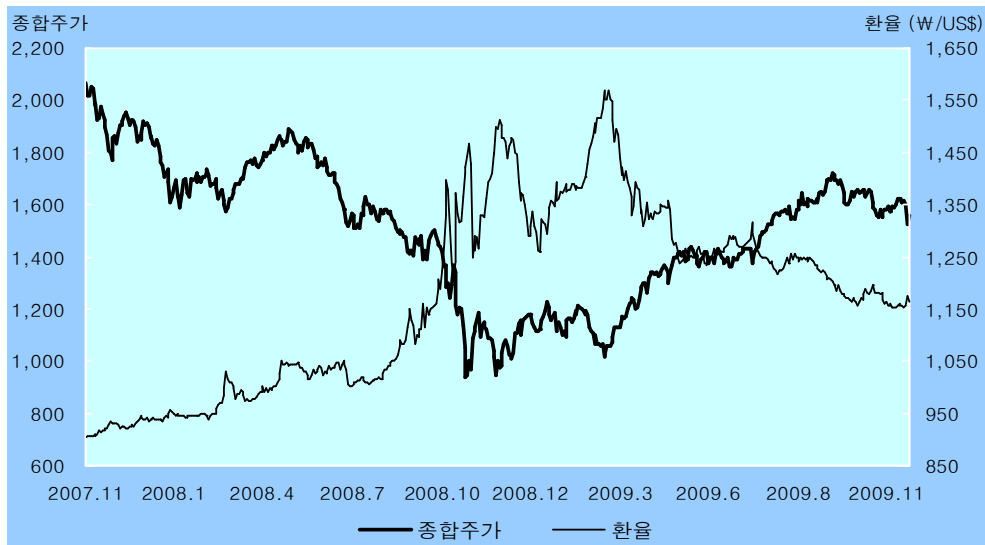
구 분		2008년	2009년					월말잔액	
		연중	7월	8월	9월	10월	11월	2009년	
								10월	11월
가계대출 ¹⁾		25.0	2.6	3.0	-1.0	1.4	2.6	405.6	408.2
주택담보대출 ²⁾		18.1	3.4	2.8	-0.4	1.4	1.6	261.6	263.1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6.8	-0.7	0.2	-0.5	0.0	1.0	142.8	143.8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10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감소

- 10월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258조 6,677억원으로 전월대비 1조 9,902억원 (0.16%) 증가
- 10월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09조 4,012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2조 5,741억원(0.50%) 감소

〈표〉 서울시 금융기관¹⁾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전월대비
		10월	7월	8월	9월	10월	증감액	증감률
전국	예금은행	913,084.40	950,708.7	956,229.6	958,578.1	958,048.5	-529.6	-0.06
	비은행기관	285,738.40	288,885.8	293,680.4	298,099.4	300,619.2	2,519.8	0.85
	합계	1,198,822.80	1,239,594.5	1,249,910.0	1,256,677.5	1,258,667.7	1,990.2	0.16
서울	예금은행	405,074.20	419,566.7	420,959.5	421,465.7	418,169.7	-3,296.0	-0.78
	비은행기관	89,495.90	86,343.7	88,895.4	90,509.6	91,231.5	721.9	0.80
	합계	494,570.10	505,910.4	509,854.9	511,975.3	509,401.2	-2,574.1	-0.50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10월중 서울의 예금은행 예대율 전월대비 하락

- 전국적인 예금은행 예대율은 전월보다 0.5%p 하락하여 전월대비 하락 폭 감소
(5월 89.9% → 6월 89.2% → 7월 89.8% → 8월 89.1% → 9월 87.7%)
- 서울의 10월 중 자금의 지역환류도를 나타내는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은 61.1%를 나타내어 전월보다 0.1%p 하락한 수준

〈표〉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¹⁾ 추이

(단위 : %, %p)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10월	7월	8월	9월	10월	증감
전국	87.6	89.8	89.1	87.7	88.2	0.5
서울	61.4	62.2	61.7	61.2	61.1	-0.1

주: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 창·업·동·향 |

10월 기준 서울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10월 신설법인은 4,540개로 전월비로는 명절 및 기저효과(9월 실적 2003년 이후 처음으로 5,000개 이상 달성) 등으로 12.6%(653개)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14.2%(565개) 증가하여 6월부터 5개월 연속 높은 증가세를 기록

■ 서울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10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704개로 전월대비 9.2%(172개)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19.6%(279개) 증가

■ 서울 모든 업종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10월 중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12.3%(146개) 증가, 제조업 53.8%(86개) 증가하였고, 건설 및 설비업은 50.6%(41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8년	2009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0월	7월	8월	9월	10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3,975	5,501	4,567	5,193	4,540	-653	-12.6	565	14.2
서울	1,425	1,974	1,638	1,876	1,704	-172	-9.2	279	19.6
서비스업	1,184	1,490	1,254	1,471	1,330	-141	-9.6	146	12.3
제조업	160	321	264	269	246	-23	-8.6	86	53.8
건설 및 설비업	81	158	112	131	122	-9	-6.9	41	50.6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상승

■ 전국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한 수준

- 10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전자결제 조정 후)은 0.02%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124개로 전월(138개)보다 14개 감소하였으나 09.1~9월 평균치(176개)를 크게 하회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보다 증가

- 10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전월대비 0.01%p 증가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43개로 전월대비 24.6%(14개) 감소, 전년동월비로는 61.3%(68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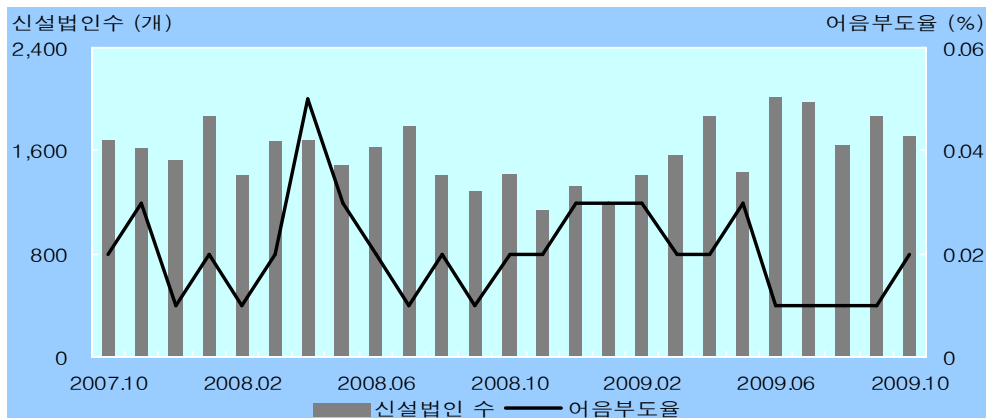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0월	7월	8월	9월	10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3	0.02	0.02	0.02	0.02	0	0.0	-0.01	-33.3
부도업체 수	321	129	110	138	124	-14	-10.1	-197	-61.4
서울									
어음부도율	0.02	0.01	0.01	0.01	0.02	0.01	100.0	0.00	0.0
부도업체 수	111	45	35	57	43	-14	-24.6	-68	-61.3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자료임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소기업 신용보증지원 대폭 증가

■ 신용보증 건당 평균 지원금액 증가

- 11월중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4,187건, 61,133백만원으로 전월 대비 건수 기준 19.4%, 금액 기준 14.1%의 감소세를 기록함
- 전년 동월 시점과 비교시 총량규모 건수 기준 7.2% 증가하였으나, 금액 기준 5.5%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음
- 전월대비 공급 총량지표는 감소하였으나, 건당평균금액은 증가세로 돌아섬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1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3,907	10,944	13,036	13,699	5,197	4,187	-1,010	-19.4	280	7.2
금액	64,719	190,971	203,478	212,133	71,127	61,133	-9,994	-14.1	-3,586	-5.5
건당평균금액	16.6	17.4	15.6	15.5	13.7	14.6	0.9	6.6	-2.0	-12.0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제조업 및 도·소매업 비중의 증가

- 11월 기준 「업종별 신용보증 변동 현황」의 특징은 전월대비 서비스업 비중이 금액기준 1.8%p(37.0% → 35.2%)감소하며, 12월 연속 증가추세가 감소세로 전환됨
- 반면, 제조업 및 도·소매업 신용보증 지원비중은 전월대비 건수기준 1.1%p, 금액기준 4.5%p 증가세를 기록함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192	1,124	468	2,126	277	4,187
비율	4.6	26.8	11.2	50.8	6.6	100
금액	4,813	21,027	6,688	21,540	7,065	61,133
비율	7.9	34.4	10.9	35.2	11.6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기업 지원비용의 대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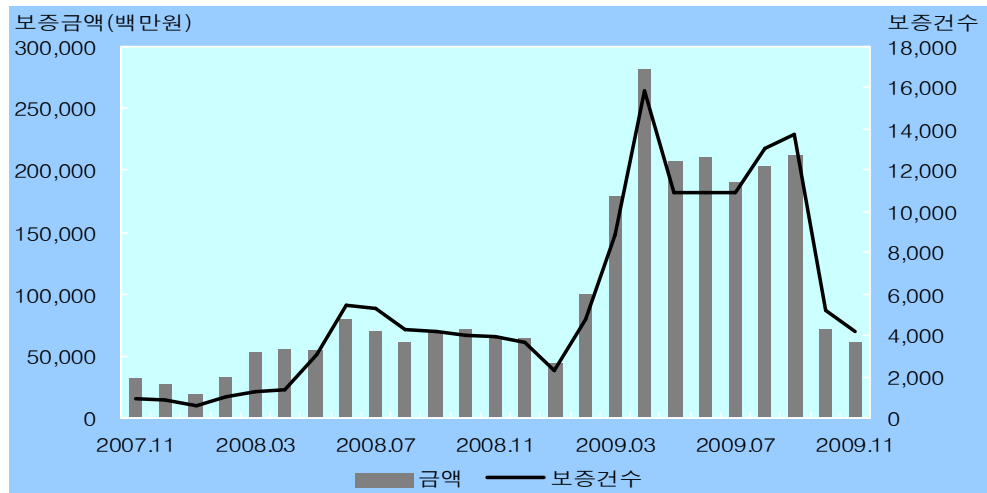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11월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소기업 차지비율이 전월대비 건수기준 0.3%p, 금액기준 7.5%p 대폭증가로 집계됨
- 한편, 소상공인 지원비율은 전월대비 건수기준 0.7%p, 금액기준 11.6%p 감소율을 기록함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9.09	2009.10	2009.11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13,444	5,102	4,081	-1,021
	비율	98.1	98.2	97.5	-0.7
	금액	200,550	66,820	50,334	16,486
	비율	94.6	93.9	82.3	-11.6
소기업	건수	213	73	72	-1
	비율	1.6	1.4	1.7	0.3
	금액	9,015	3,134	7,277	4,143
	비율	4.2	4.4	11.9	7.5
중기업	건수	42	22	34	12
	비율	0.3	0.4	0.8	0.4
	금액	2,568	1,173	3,522	2,349
	비율	1.2	1.7	5.8	4.1
합계	건수	13,699	5,197	4,187	-1,010
	비율	100	100	100	0
	금액	212,133	71,127	61,133	-9,994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의 수출입 전년동월 대비 증가

■ 전국 수출입 모두 증가세 전환

- 전국의 수출은 340.8억 달러(전년동월대비 18.1% 증가), 수입은 294.6억 달러(전년동월대비 2.1% 증가)로 무역수지는 46.2억달러를 기록
- 수출은 작년 11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 증가하였고, 수입도 증가세로 전환
- 전월대비 수출은 소폭 증가(0.3%)한 반면, 수입은 감소(-2.9%)하면서 무역수지는 전월 대비 10억불 증가한 46.2억불 흑자

■ 전국 수출 전가전자제품의 증가세, 수입 소비자·자본재 중심 회복세

- 수출에서는 전가전자제품인 반도체, 액정디바이스, 가전제품이 증가하였으나, 수송장비인 자동차, 선박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18.1% 증가
- 수입에서는 전년대비 소비자재, 자본재는 모두 증가하였으나, 원유 등 원자재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2.1% 증가

■ 서울의 수출입 전년동월 대비 증가

- 11월 서울의 수출은 33.4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2.5% 증가하였고, 수입은 68.0억달러로 21.8% 증가
- 전월대비로는 서울의 수출과 수입 각각 5.2%, 1.8% 증가

■ 11월 기준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반도체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343,557천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편직물, 반도체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반도체가 가장 많아 625,344천 달러에 달하였으며, 다음은 컴퓨터, 석유제품, 자동차 등 순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이고,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으로 나타남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11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28,842	32,023	28,966	34,507	33,957	34,075	5,233	18.1	118	0.3
	수입	28,854	27,617	27,262	29,795	30,326	29,457	603	2.1	-869	-2.9
서울	수출	2,343	3,098	2,793	3,565	3,172	3,338	995	42.5	166	5.2
	수입	5,586	6,581	6,470	7,073	6,682	6,802	1,216	21.8	120	1.8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11월		2009년 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54,287	256.2	343,557	532.9
2	자동차부품	101,555	1.9	192,302	89.4
3	편직물	167,870	3.3	179,187	6.7
4	반도체	116,446	-44.3	172,809	48.4
5	컴퓨터	98,776	14.4	170,808	72.9
6	합성수지	68,915	-32.8	152,472	121.2
7	무선통신기기	97,147	16.5	133,873	37.8
8	고무제품	83,766	-21.8	127,873	52.7
9	합성고무	38,639	105.4	98,197	154.1
10	어류	28,692	-24.4	92,238	221.5
합계		2,343,426	-6.1	3,337,734	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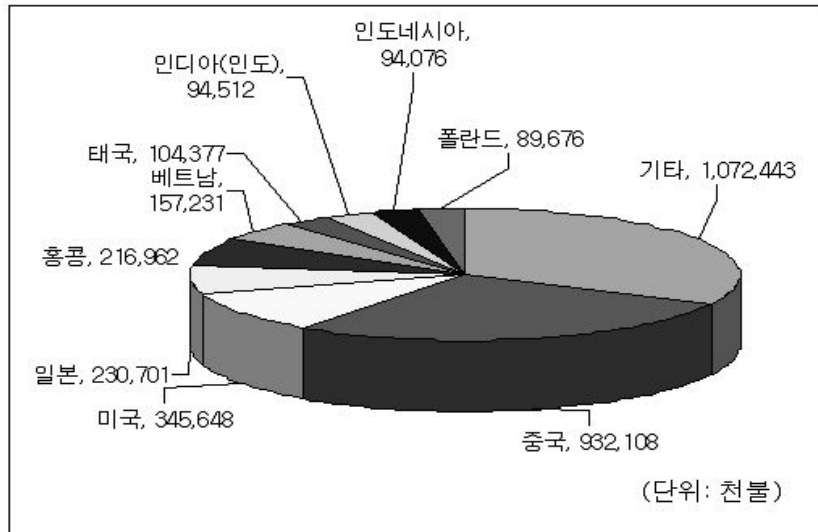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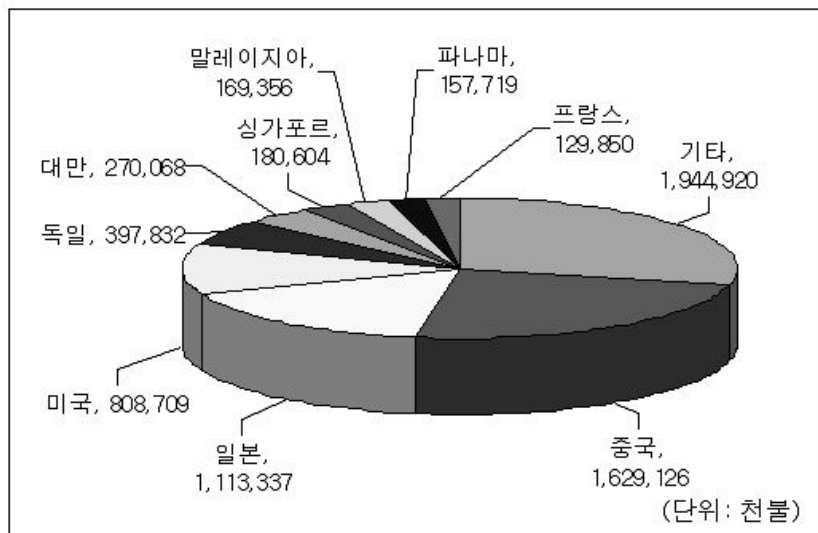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11월		2009년 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512,439	28.2	625,344	22.0
2	컴퓨터	350,133	-40.7	415,780	18.7
3	석유제품	128,826	-5.7	344,470	167.4
4	자동차	122,787	-53.9	225,291	83.5
5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163,500	-7.0	221,636	35.6
6	의류	203,113	-8.9	212,324	4.5
7	무선통신기기	121,444	30.2	185,968	53.1
8	플라스틱제품	67,564	-8.9	179,265	165.3
9	농약 및 의약품	86,457	-21.5	161,383	86.7
10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01,997	187.5	140,589	37.8
합계		5,586,130	-12.9	6,801,521	21.8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